

[TV]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잇단 사건·사고... 연예계 뒤숭숭한 1월

이민영·이찬 파경, 김형은 사고사 이어 유니 자살까지



연예계가 신년벽두부터 우울한 사건을 잇달아 맞고 있다. 작년 말 이찬·이민영 커플의 파경 소식이 전해진 뒤...

김형은(사진 오른쪽)이 결국 10일 사망하고 말았다. 김형은의 사망으로 개그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일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돼있는 연예계 전체가 고인을 기리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또 9일 한 여성의 죽음이 연예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오지호(사진 왼쪽 아래)가 자살한 임 모씨와 연인관계였던 것이 드러나며, 오지호는 16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올려 추모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두 사람의 연인 시절의 일들과 자살 이유에 대해 증계방송되다 시피 보도되고 확산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에 이어지며 연예계가 뒤숭숭해졌다.

아직 김형은의 사고사 여과가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21일 유니가 집에서 목을 매단 채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있다.

더욱이 경찰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는 않았지만 유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볼 때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일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2년 전 배우 고 이준우 씨의 자살이 악몽처럼 다시 떠올려지고 있다.

생전 유니(사진 왼쪽 위)와 절친했던 한 연예인은 "유니가 2집 발표 이후 많이 괴로워하고, 우울해했다. 한동안 지인들과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내왔는데 얼마전 3집으로 컴백한다는 것을 기세를 통해 접하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불과 어제 그 메시지를 남겼는데 오늘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가 막히다"며 충격에서 헤어나 오지 못했다.

Living TV 유럽정복-백 팩커스 (오후 7시50분) advertisement featuring a man and text about a travel program.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 advertisement with details about hearing aids and contact information.

케이블·위성TV 23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